

제목	잔별과 윤슬 사이		
소속 대학	한림대학교	소속 학과	식품영양학과
학 번	2021****	이 름	강**
이메일		연락처	

청춘의 서막, 화양연화

중학교 3학년, 사춘기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혼란의 시기였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어정쩡한 나이에 나는 이유 없는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지 모르겠고, 나조차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절. 그때 내 옆을 조용히 지켜준 건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 앨범, 그리고 "I NEED U", "RUN" 같은 노래들이었다.

처음 그 노래들을 들었을 땐 충격에 가까웠다. 멜로디는 감성적이고 중독적이었지만, 가사는 그보다 훨씬 깊었다. 사랑과 상처, 도망치고 싶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는 청춘의 모습. "I NEED U"에서 느껴졌던 절박함, "RUN"에서 느껴졌던 버텨야만 했던 마음. 그것들은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나와 닮아 있었다. 그 노래들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내 감정을 대신 표현해 주는 언어였다.

나는 그들의 무대를 반복해서 보고, 가사를 곹씹으며 혼자만의 감정을 다독였다. 학교에서는 늘 밝은 척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어폰을 꽂고 숨 쉬듯 노래를 들었다. “다시 run run run 넘어져도 괜찮아”라는 가사에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실패해도, 아파도 계속 뛰어야 한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노래는 내 마음을 바꿔주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단순한 깨달음이 그 시절의 나에게겐 큰 힘이였다.

덕질은 어느새 나의 하루를 채우는 중요한 루틴이 되었다. 컴백이 다가오면 설렘고,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 친구들과 함께 분석하듯 봤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는 감

정이 이렇게 따뜻하고 힘이 되는 일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단지 ‘아이돌’의 노래가 아니라, 내 사춘기의 정서를 이해해준 친구 같은 존재였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고, 덕질의 형태도 조금은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우울하거나 길을 잃은 기분이 들 때면 나는 자연스레 화양연화를 꺼내 듣는다. 버스 안, 지하철 안, 혼자 있는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익숙한 멜로디는 나를 다시 그때로 데려가 준다. 그러나 더 이상 아프지만은 않다. 그 시절을 지나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는 아이돌 음악일지 몰라도, 나에게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청춘 그 자체였다. 방향과 상처, 그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노래한 그들의 이야기는 내 성장의 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누군가의 음악을 듣는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 어릴 때처럼 열정적으로 빠져들진 않아도, 여전히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노래 한 곡이 나를 다시 살게 만든다.

음악은 그렇게 내게 길이 되어주었다. 길을 잃었을 때 손을 내밀어 주고, 다시 걷게 해주는 그런 존재. 방향의 계절을 지나온 지금도 나는 음악을 들으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간다. 청춘은 끝났을지 몰라도, 음악은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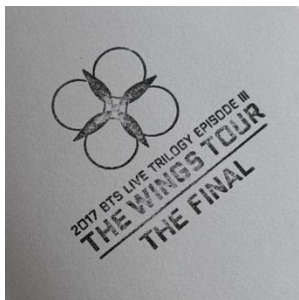
무너지는 나, 조용한 외침

시간은 흘러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화양연화의 감성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지만, 현실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좋은 대학’이라는 목표는 마치 정답처럼 주어졌고, 나는 그 길을 따라야만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나는 자꾸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나보다 앞서 나가는 친구들을 보며, 나 자신을 꺾어내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들었던 노래가 Save Me였다. “그 손을 내밀어 줘 save me, save me”라는 가사는 단순한 가사 같았지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 같았다. 걸으

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나는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었다. 목표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그걸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포기해버리는 쪽을 택했다. 공부가 하기 싫어졌고,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두려워졌다. 그러면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렸다.

에피소드: 그날, 우리는 울어도 괜찮았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나는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 갔다. 늘 화면 속에서만 보던 무대를, 귀가 아닌 눈과 온몸으로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날의 공연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다. 눈이 부신 조명과 쏟아지는 함성,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노래하는 일곱 명의 모습은 현실 같지 않았다.

그날 유난히 마음을 크게 울린 순간이 있었다. 바로 "둘! 셋!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기를)"과 "You Never Walk Alone"이 불릴 때였다. 노래가 시작되자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건 단지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사 하나하나가 그동안 꼭 눌러 담았던 감정과 꼭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넘어지곤 때론 다칠 때라도 함께해 주겠니” 이 두 문장은 마치 그날 나를 위해 준비된 말 같았다. 그동안 나는 내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겼다. 고등학교 생활은 나를 점점 무력하게 만들었고, 공부도 꿈도 모두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다. 그런데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의 진심이 느껴졌고, ‘지금은 비틀거려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다정한 확신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화면 너머에서 들던 노래들이 실제 공연장에서 울려 퍼질 때,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비교에 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날의 무

대는 내게 조용히 말해주었다.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나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희망이었지만, 분명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건 단지 콘서트의 추억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걸어갈 용기를 준 ‘현실의 위로’였다.

무너지는 집, 흔들리는 마음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던, 종이로 지은 집 같은 고등학교 생활. 무너진 잔해 속에서 다음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았다. ‘무너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관계’를 사랑에 빚댄 “house of cards”가 사실 그 시절의 나와 삶 그 자체였다.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세워 둔 내 목표는 이미 영성했고, 내 마음은 그 아래서 삐걱대고 있었다.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진 못했기에 끝까지 손을 놓지 못했지만, 사실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채, 그렇게 나는 10대를 마무리했다. 기대했던 결실도, 반짝이던 출발선도 없었다. 준비되지 않은 20대가 시작됐고, 나는 그 시작선 앞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멈춰버린 20살의 계절

결국 10대의 전부였던 나를 울렸던 그 음악들은, 불안정한 20대의 시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더는 듣지 못했다. 너무 많이 울었던 노래들, 너무 많이 기대고 싶었던 가사들. 살기 위해 나는 그 음악들을 버렸고, 살기 위해 잊고 싶었다.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흔들렸던 탓에, 다시 무언가에 기대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그건 음악뿐만이 아니었다. 내 지난 10대 전체를 외면하고 싶었다. 그래야 건널 수 있었다. 20살이 되자, 친구들은 각자의 대학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SNS에 올라오는 캠

퍼스 사진, 엠티, 동아리, 강의실, 사람들. 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대학에 가지 않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방 안에 틀어박혀 시간만 흘려보냈다. 괜찮다고 말하는 부모님의 입술에 비해 걱정으로 가득한 그 눈빛을 마주하는 건 점점 힘들어졌다. 그래서 더 도망치고 싶었다. 방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조차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시기의 나는 단지 '쉬는 중'이 아니었다.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었고, 그 안에서 나는 아주 천천히,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봄을 지나며

시간은 지나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내 안에도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확한 목표는 없었지만, 더는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가고 싶은 길이 생겼고,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려 애썼다. 그건 확신이 아닌 희망에 가까웠지만, 분명 예전과는 다른 시작이었다. 햇살 좋은 날엔 밖에 나가고 싶었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예전처럼 무너지는 밤보다, 그냥 평범히 지나가는 하루가 더 많아졌다. 나는 내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리고 분명, 맞는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음악은 곁에 둘 수 없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무너졌던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너무 뜨겁게 좋아했던 만큼, 너무 깊이 기대었던 만큼. 그 음악은 나에게 여전히 무거웠다. 아름다웠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아프고, 너무 낭떠러지 같았던 기억들. 그래서 그 노래들이 다시 내 귓가에 들려오는 게 두려웠다. 기억은 음악을 타고 너무 생생하게 돌아오니까.

나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지만, 그 음악은 아직 내게 회복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러 듣지 않았다. 아니, 아직은 들을 수 없었다.

괜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시절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

나는 음악 없이 조금 더 걸기로 했다.

사랑하고 싶어

결국 나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긴 했다. 완전한 만족은 아니었지만,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 했을 결과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가 닥쳤고, 캠퍼스 생활은 사라지고 모든 일상이 멈췄다. 어쩌면 그 시절은 20살보다 더 암울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간들을 조금은 더 밝게, 조금은 더 단단하게 견뎌냈다.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았고, 어딘가로 도망치지도 않았다. 나는 더 이상 10대처럼 음악을 뜨겁게 사랑하진 못했다. 그 시절처럼 음악이 내 삶의 중심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위로받았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로서의 음악은 여전했다. 나는 잠시 음악을 뒤로하고, 오랜 시간 진정한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홀로 길을 떠났다. 예전에는 음악 안에서만 나를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다운 나’에 가까워졌다. 가끔은 그리워진다. 차마 들을 수 없었던 노래들, 그 시절의 나, 그리고 울음을 참으며 흘려보냈던 청춘의 밤들. 그 기억들은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 같았지만, 어쩌면 음악이라는 가로등이 거기 켜져 있었기에 찢어지지 않고, 다만 색이 조금 바랜 채로 조용히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빛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나로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제 나는 그 노래들을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흘러들을 수 있다. 가사를 곱씹는 날도 있지만, 그때만큼 아프지는 않다. 그건 내가 무뎠진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여전히 길 위에 있고, 여전히 완전하진 않지만, 더 이상 음악 속에 갇힌 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내가 되었다. 음악은 이제 다시, 천천히 나의 삶에 돌아오고 있다.

그리움도, 위로도, 기억도 모두 품은 채.

이제는 조금 덜 아픈 마음으로, 그 시절의 노래들을 안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외로웠던 나의 10대, 끝없이 흔들렸던 그 시절의 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외쳐본다. 네가 어떤 형태든 언제나 사랑해.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